

“활기찬 농촌 만들기”...강진군, 농업 경쟁력 강화 ‘박차’

농업 분야 652억 투입...농가 경영비 부담 절감 집중 친환경 농자재·유기농업 육성 장려 등 안정 소득 창출

강진군이 활기찬 농업·농촌을 위해 올해 농업분야에 65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중 지원에 나섰다.

6일 강진군에 따르면 농업정책분야 119개 세부사업에 592억원을 투자, 청년·여성농 육성, 식량작물 및 비 대체 소득 작물 육성, 시설원예 기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며 농업유동분야 37개 세부사업에 59억원을 투입해 농산물 유통·식품산업업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으로 1개소당 30만원씩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덜고 일손 부족 해소로 위해 군내 76개소를 지원한다.

또한 20~75세 여성농업인에게 대해 20만원씩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기존 75세에서 농촌 고령화 현실에 맞춰 85세까지 확대, 군비 지원을

을 통해 76~85세 여성 농어업인에게도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특히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비 경영안정자금 82억원과 비 육묘 비용 지원 쿠폰 13억9천만원 등 6천300여 농가에 지원 완료했으며, 공익수당 50억8천만원 등 8천470여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수적인 농기계 지원에 중·소·대형 농기계 지원과 함께 드론 29대, 특수 농기계 11대 등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에 16억900만원을 편성했다.

기상 이변에 취약한 쌀기리를 대상으로 전체 면적 약 1천500ha에 질소질이 없는 규산 또는 칼슘 성분인 포함된 비료 지원사업비 3억원을 확보·투입해 고품질의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달 30일 모내기 현장을 찾아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농업 현장을 점검했다.

〈강진군 제공〉

쌀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비 대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로 1억2천500만

원, 논공 재배 육성지원 사업비 3억원을 지원해 식량 자급을 향상과 쌀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강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늘어나는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따라잡기 위해 친환경인증 농가에 ha당

유기농 비 40만원, 무농약 비 20만원, 친환경 과수·채소 5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 유기농업 육성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시설 투자와 노동력 투입이 요구되는 원예·특작 분야에도 30억원을 투입했으며, 장기성 필름 지원, 일반필름 지원, 시설원예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을 통해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농가에서 생산한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해 강진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 쌀 소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등 3억9천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강진원 군수는 조생종 벼 모내기 현장을 찾아 “기후변화와 잦은 재해로 모두가 힘든 환경이지만 변화하는 농업 분야에 발맞춰 정책 발굴을 통해 농업인들의 수요 욕구 충족과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해남군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잔결음

영암호 활성화 포럼...서남부권 관광레저 동력 확보

해남군이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솔라시티 기업도시를 전남 서남부권을 대표하는 해양레저 관광중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했다.

6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군은 영암군과 함께 관광레저 기반 구축을 위한 내수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영암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영암호 활성화를 위한 관광레저 포럼’을 개최했다.〈사진〉

포럼에는 목포대학교, 한국섬진흥원, 경기도청, 케이워터운영관리, 인하공업전문대학 해양레저센터, (재)해남문화관광재단 등 해양레저관광 관련

산업의 전문가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해남군·영암군은 공동으로 기업도시 3개지구(구성·삼포·삼호)와 영암호를 연계하는 해양레저관광 기반 구축을 통해 서남부권 관광레저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암호 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영암호와 주변 서남해안 일대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 자원과 개발계획을 세워 영암호를 복합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남군은 올해 기본 구상 용역을 마

치고, 해양수산부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 공모에 도전할 계획으로 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제안을 수렴하며, 경쟁력 있는 영암호 관광레저 기반 구축을 위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치진 부군수는 “해양레저 관광시장은 전체 관광시장의 50%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3% 이상 꾸준한 성장과 함께 전 세계 GDP와 전체 일지리의 10%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해양레저 관광산업의 잠재력이 풍부한 영암호를 활용해 솔라시티 기업도시가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용 기자



‘신안1004물’ 가정의 달 이벤트 17일까지 최대 60% 할인 진행

신안군은 6일 “신안1004물”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최대 60%의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정의 달 할인 행사에서는 전 상품에 회원 1인당 3개, 최대 2인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20% 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100% 당첨되는 룰렛 이벤트에서는 구매 1회에 한해 10~20~30%의 추가 할인 쿠폰과 모바일 기프트콘을 제공하는 등 최대 6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 회원에게는 10% 할인 쿠폰과 함께 1천원이 적립되고, 사진과 50자 후기를 작성하는 고객에게는 3천원이 적립된다. 또 카카오톡 채널 추가 시에는 2천원의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가정의 달 이벤트로 체소 값 급등 등 고물가로 인한 소비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풍성한 가정의 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양홍자

완도 약산 해안 치유의 숲, 방문객 크게 늘었다

전년비 3.6배 ↑...신체·건강 회복 산림치유 만끽

‘완도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6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산림이 어우러진 ‘약산 해안 치유의 숲(약산면 당북길 148-1)’에는 지난달 말 기준 3천46명이나 다녀갔으며, 54명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산림치유 참여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배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완도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은 동백나무와 붉가시나무, 구실잣나무 등 사철 푸른 난대 수종과 함께 다도해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으며, 숲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등 신체와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산림치유를 만끽할 수 있다.

지난 3월부터는 산림치유 지도사 3명을 배치해 4가지 테마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프로그램은 체조, 걷기, 명상, 요가, 족욕(사진) 등을 기본으로 하며 여행객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마음樂 동백향’과 싱잉 볼 명상, 직장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마음 쉼 숲 내음’, 내 몸 상태 측정,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한 ‘마음 볼 너울풍’, 청소년을 위한 ‘마음 사랑해오름’ 등으로 구성됐다.

완도군은 산림치유에 대한 입소문과 함께 전남 관광지 순환 버스인 ‘남도 한 바퀴’ 코스 등에 프로그램이 반영되면서 방문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완도=윤보현 기자

2024 ‘코리아둘레길’ 원정대, 목포서 출발

‘걷기여행 주간’ 선포식...19일까지 원정대 운영

2024년 상반기 ‘걷기여행 주간’의 첫 시작 행사가 목포에서 열렸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민적 걷기여행 붐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2024년 상반기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주간 선포식이 목포 갯바위 문화타운 야외광장에서 개최됐다. 〈사진〉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주간은 상반기 5월과 하반기 9월에 약 2주간 진행하며, 상반기 원정대는 목포와 함평, 고창, 부안, 군산, 사산, 화성에서 이뤄진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이상진 부시장, 박종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서정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코리아둘레길 원정대·자원봉사단, 인플루언서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목포 걷기여행코스인 서해랑길 18코스로 원정대를 환송하고 종료됐다.

서해랑길은 ‘서쪽(西)의 바다(파도)와 함께(랑) 걷는 길’을 뜻하며, 서해랑길 18코스는 목포진 역사공원, 목포근대역사관 등 근·현대를 넘나드는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천연기념물 제500호인 갯바위와 세 마리 학의 전설이 깃든 삼학도, 다도해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유달산 낙조대



함평나비대축제 후 ‘엑스포공원’ 정상 운영

정비 기간 거쳐 9일부터 개방

함평군은 6일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종료 후 7~8일 이틀간 정비 기간을 거친 후 9일부터 함평엑스포공원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지역농특산물 판매 부스 및 문화공연 등이 펼쳐진 중앙 무대를 7~8일 철거하고, 관람객 안전을 위해 함평엑스포공원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공원이 정상 운영되는 9일부터 각종 각색의 식물로 다양한 테마를 연출한

식물전시관 및 세계의 나비와 곤충들을 관람할 수 있는 나비곤충생태관, 함평의 70~80년대 생활상을 직접 체험하고 그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함평추억작소 등 다채로운 주제의 전시관 관람이 가능하다.

한편, 함평추억작소에 마련된 황금박쥐전시관에서는 순금 103g, 은 281kg으로 제작된 황금박쥐상도 만나볼 수 있다.

공원 중앙광장에는 끝나무·희망나무, 이색 초화류 포토존 등 다양한 포토스팟이 있어 가족·친구와 함께 추억을

남기기에 제격이다.

함평천 습지공원에 펼쳐진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무더위에 잠시 지친 몸을 쉬 수 있는 대왕참나무 쉼터 등 휴식공간이 관광객들을 반긴다. 또한 야간에는 다양한 조명들이 빛을 비추며 색다른 함평엑스포공원의 자태를 뽐낸다.

이상익 군수는 “축제는 끝나도 함평 엑스포공원은 정상 운영되며 함평의 풍부한 축제 콘텐츠를 다시 한번 경험해 보길 권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최고 축제 도시의 자부심으로 전국민, 더 나아가 세계인을 향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발굴과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무안 황토갯벌랜드, 뷰 맛집 셀프주방 오픈

밀키트 조리 공간·카페 등 휴게공간 운영

무안군은 6일 “황토갯벌랜드를 찾아 오는 관광객의 먹거리와 휴식공간 제 공을 위해 뷰 맛집 셀프주방과 카페, 갤러리 체험존, 휴게공간을 새롭게 단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뷰 맛집 셀프주방은 관내의 밀키트 제품을 고객이 선택해 스스로 요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에 오면 누구나 ‘나도 요리사’가 될 수 있다.

밀키트 제품은 ▲농식품부 체험키트 상품과 시범사업 품목인 찹스테이크 ▲무안군 관내 밀키트 생산가의 두

부버섯전골 ▲부대찌개·얼큰동태탕·차돌된장찌개 등 식사메뉴 ▲관내에서 생산된 고구마 간식인 썰레고·떡먹고 등이 있다.

특히 모두가 즐겨 먹는 한마리 치킨·순살치킨·감자튀김은 AI 전자동 튀김기로 5분 내 조리돼 방문객들은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차와 함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야외 카페 공간에는 포토존이 조성돼 있고 갤러리와 체험존의 레트로게임, 편백 족욕 등을 마련해 관광객을 맞



이할 준비를 마쳤다.

허재경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은 “그 동안 관광객에게 부족했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과 공간을 마련해 많은 분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명소가 될 수 있도록 황토갯벌랜드를 가꿔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